

2008년 8월 11일 월 말씀

조은 소리 계속 지금 하는 대로 잘 만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잘 구상해서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좋게 만들면 자꾸 좋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계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듯 자기인생도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 발 닿는 데도 만들고, 생활도 만들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들 때 인생이 지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낱생선 사다주는 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낱 생선을 그대로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재료는 하나님이 주시니 자기 개성대로 인간이 요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심리가 각각 이니까 그 요리까지는 하나님께서 못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오래 있다가 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체가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힘들면 쉬었다 하십시오. 쉬다가 잠들면 안 되지만. 나그네 가듯이 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좋은 게 있으면 쉬었다 가지 거기서 살지는 않습니다. 것처럼 계속 전진해서 가는 것입니다.

멋있는 안무를 짤 때 연극도 영화도 멋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자기를 멋있게 잘 짜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틀에 박힌 세계로 가면 못 삽니다. 괴롭기 때문입니다. 시계처럼 어디에 갖다 봐도 그냥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시계보다 못한 인생이 거의 90%입니다. 환경에 가둬놓으면 못합니다. 그러니 시계보다 만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물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하다고 하십니다. 멋지게 인생들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금방 꺼져서 또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한 천하를 호령하는 말씀이라 해도, 또 죽는다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인생들입니다. 한 번 뱀한테 물렸다 하면 산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가야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장비를 갖춰서 가면 안 물립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면 지나치게 해버리고 내가 얘기 안 하면 또 지나치게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늘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 때 자기만의 노하우를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웅열사라도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그만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목적지만을 향해서 목적만을 희망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못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계속 올라가야지 중간부터는 못 올라갑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큰 지도자들은 영웅들은 절대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지능이 낮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줘도 사람들의 귀에 안 들립니다. 지능 140-150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금메달 따거나 이런 사람들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해서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도 해야지' 하면서 가지만 오천만, 백만 명 중에 하나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십 년 만에 하나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 밖에 없습니다. 뛰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 한 것 같지만 보일 때만 그런 것입니다. 가보면 또 다릅니다. 보는 것 하고 가서 하는 것 하고 차

이가 있습니다. 뛰면 다른 것입니다. 배구를 할 때도 점프해서 볼 때는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입니다. 그러나 점프를 안 하고 볼 때는 네트의 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핸드볼 할 때 구경하면서 응원하는데 ‘정말 이기고 싶으면 목숨을 걸고 응원하라 그러면 내가 해줄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잘되면 또 배 아파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심정이다. 축복해 줄 수 있냐?’ 그래도 변함없이 축복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한계를 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동할 때 한 가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40-50가지를 잘 해야 수영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몸 관리 해야지 먹는 것 관리해야지 계속 정신관리 해야지...이렇게 50가지 이상을 관리해야 수영선수가 되지 한 가지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들 관리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만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먹여줘야 됩니다. 또 얼어 죽는데 놔둘 수 있지 않습니까? 옷도 사줘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수 십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냥 복음만 넣고 된 것이 아니라 창녀촌에 가서 살면서 도와줬습니다. 끄집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람이 가는 길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 마치 강을 막는 것과 똑 같습니다. 댐이 되어 버립니다. 시커먼 댐으로 되어 버립니다. 더 크게 칼을 갑니다. 사상의 칼을 또 갑니다. 그래서 막으면 댐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내가 키도 작고 조그마해서 내가 지나가면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 만 하면 사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청중이 따라오고 50개국 나라에서 사상을 뒤집어져서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에 전념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사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받고 가면 됩니다. 선생님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번 해보겠다. 성경대로 살아보겠다.’ 하니까 환란도 어려움도 있고 그 환란 때문에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혀가 닳도록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몸이 닳도록 하겠다고.’ 그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하고 계속 나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배운 것이 없으면 내 놓을 것이 없습니다. 들어가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합니다. 악을 먹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꺾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고등부 회원들은 무섭게 씹니다. 그렇게 무섭게 크면 소나기 맞아도 무서워하지 않고 나중에는 ‘비가 왜 안 오나’ 하고 계속 기다립니다.